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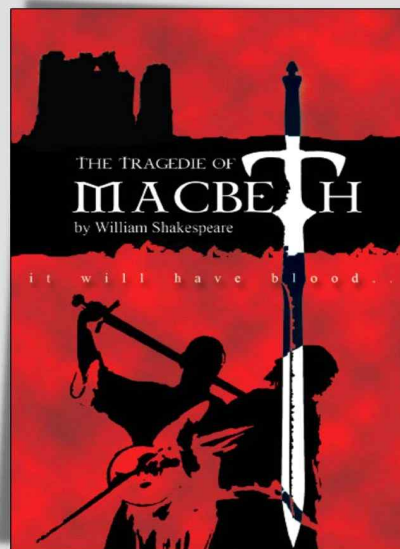
# 18 minutes is Enough

18분만 투자 하세요

맥베스

(Macbeth)

04



The time I kill is killing me.

## 맥베스 간단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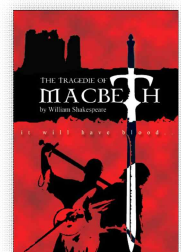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쓴 "맥베스"는 스코틀랜드의 장군 맥베스의 이야기를 다룬 5막으로 구성된 희곡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던컨 왕을 섬기는 장군인 맥베스와 반쿠오는 세 마녀인 이상한 자매를 만나게 되는데, 이들은 맥베스가 코도어의 후작이 되고, 반쿠오가 왕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던컨 왕이 맥베스를 기리기 위해 인버네스에 있는 던시네인 성을 방문했을 때, 맥베스는 아내의 부추김으로 던컨 왕을 살해하고, 던컨의 아들 말콤과 도날베인은 나라를 떠나 도망갑니다. 그들의 빠른 출발은 그들이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보이며 맥베스가 왕이됩니다.

맥베스의 자손이 아닌 반쿠오의 후손이 왕이 될 것이라는 마녀의 예언에 걱정이 된 맥베스는 반쿠오의 살해하지만, 반쿠오의 아들 플랑스는 탈출합니다.

반쿠오의 유령이 맥베스를 괴롭히고, 맥베스 부인은 죄책감으로 미쳐버립니다. 마녀들은 버남 우드가 던시네인으로 올 때까지 맥베스가 안전할 것이며 "자궁에서 태어난" 자는 그 누구도 그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맥베스에게 약속합니다.

버남 우드의 나뭇가지를 위장으로 삼은 군대가 "숲"이 되어 던시네인으로 진격하자 맥베스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맥베스 부인은 자살하고, 맥베스는 "제왕절개로 태어난" 맥더프에 의해 전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던컨 왕의 아들 말콤이 정당한 왕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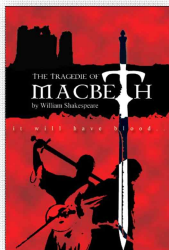
## 맥베스 요약



이야기는 스코틀랜드 왕 던컨이 자신의 장군 맥베스와 반쿠오가, 스코틀랜드에 대항하여 노르웨이 군대에 동조한 반역자 맥돈월드 침략군을 물리쳤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캠프로 이동합니다. 적군과의 치열한 전투를 마친 맥베스와 반쿠오는 황야를 건너던 중 마녀들과 마주칩니다. 마녀들은 맥베스가 스코틀랜드 귀족의 계급인 후작이 되고 결국 스코틀랜드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또한 맥베스의 동료인 반쿠오가 스코틀랜드 왕의 계보를 이을 것이라고 예언하지만 반쿠오가 직접 왕이 되는 못할 것이라고도 예언합니다.

마녀들은 사라지고 맥베스와 반쿠오는 그들의 예언을 회의적으로 대하지만 던컨 왕의 부하들이 전투에서 승리한 두 장군에게 감사를 표하고 맥베스에게 그가 실제로 코도어의 백작으로 임명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찾아옵니다. 전임 후작은 노르웨이인을 위해 싸우며 스코틀랜드를 배신했고 던컨은 그를 사형에 처했습니다. 맥베스는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마녀들의 예언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끼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맥베스는 던컨 왕을 찾아가 그날 밤 맥베스의 성인 인버네스에서 함께 식사를 하기로 계획합니다. 맥베스는 아내인 레이디 맥베스에게 미리 편지를 써서 모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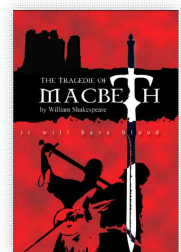
맥베스 부인은 남편의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녀는 남편의 왕권을 원하며 이를 얻기 위해 던컨을 죽이기를 원합니다. 맥베스가 인버네스에 도착하자 그녀는 남편의 모든 반대를 무시하고 바로 그날 밤 왕을 죽이도록 설득합니다. 맥베스와 레이디 맥베스는 던컨의 시종 두 명을 술에 취하게 하여 기절시킨 다음, 다음 날 아침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시종들에게 살인을 뒤집어 씌울 계획입니다.



던컨이 잠든 사이 맥베스는 의심과 피 묻은 단검의 환영을 비롯한 여러 초자연적인 징조에도 불구하고 그를 찌릅니다. 다음 날 아침 던컨의 죽음이 발각되자 맥베스는 표면적으로는 그들의 범죄에 대한 분노로 시종들을 죽이고 쉽게 왕권을 장악합니다. 던컨의 아들 말콤과 도날베인은 던컨을 죽인 자가 자신들도 죽기를 원할까 봐 두려워 각각 영국과 아일랜드로 도망칩니다.

맥베스는 반쿠오의 후계자들이 왕좌를 차지할 것이라는 마녀의 예언이 두려워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하여 반쿠오와 그의 아들 플랑스를 죽이려 합니다. 고용된 3명의 자객이 매복하여 왕실 잔치로 향하는 반쿠오를 살해 했지만, 플랑스를 죽이는 데는 실패합니다. 맥베스는 플랑스가 살아 있는 한 자신의 권력이 불안정할까 봐 두려워 하며 분노합니다. 그날 밤 연회에서 반쿠오의 유령이 맥베스를 찾아옵니다. 유령을 본 맥베스는 두려움에 질려 소리를 지르며 스코틀랜드의 귀족들이 대부분인 손님들을 놀라게 합니다. 맥베스 부인은 피해를 무력화시키려 하지만 맥베스의 왕권은 귀족과 신하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킵니다.

겁에 질린 맥베스는 동굴에 있는 마녀들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마녀들은 맥베스의 왕위 계승을 반대하는 스코틀랜드 귀족 맥더프를 조심해야 하고, 여자 자궁에서 태어난 남자에게는 해를 입지 않으며, 버남 우드가 던시네인 성에 올 때까지는 안전할 것이라는 등의 예언을 들려주며 일련의 악령과 정령을 보여줍니다. 맥베스는 모든 남자는 여자 자궁에서 태어났고, 숲은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심하고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맥더프가 말콤과 합류하기 위해 영국으로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맥베스는 맥더프의 성을 점령하고, 가장 잔인하게는 맥더프 부인과 아이들을 살해하라고 명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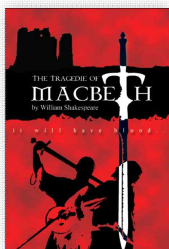


가족의 처형 소식이 영국에 있는 맥더프에게 전해지자 그는 슬픔에 휩싸여 복수를 다짐합니다. 던컨 왕의 왕자 말콤은 영국에서 군대를 모으는 데 성공하고 맥더프도 그와 함께 스코틀랜드로 가서 맥베스의 군대에 도전합니다. 맥베스의 폭압적이고 잔인한 행동에 경악과 공포를 느낀 스코틀랜드 귀족들의 지지를 받으며 침공에 나섭니다.

한편 맥베스 부인은 몽유병에 시달리며 손에 묻은 핏자국을 보며 한탄합니다. 맥베스의 적들이 도착하기 전에 맥베스는 그녀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비관적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녀의 예언이 자신의 무적함을 보장한다고 확신하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철수한 던시네인을 요새화하며 영국군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영국군이 버남 우드에서 잘라낸 나뭇가지로 방패를 삼아 "숲"이 던시네인을 향해 진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공포에 휩싸입니다. 버남 우드가 던시네인으로 진격해 오면서 마녀의 예언이 절반은 실현된 것이죠.

전투에서 맥베스는 격렬하게 저항하지만 영국군은 점차 그의 군대와 성을 압도합니다. 전장에서 맥베스는 복수심에 불타는 맥더프를 만나게 되는데, 맥더프는 자신이 "자궁에서 낳은" 것이 아니라 "제왕절개로 태어났다"고 선언합니다. 맥베스는 자신이 예언대로 "자궁 아닌곳에서 태어나 자"에게 패배 할걸 깨달지만, 맥더프가 자신을 죽이고 참수할 때까지 계속 싸웁니다.

결국 스코틀랜드의 왕이 된 왕자 말콤은 국가에 대한 자비로운 의도를 선언하고 모든 사람을 스콘에서 즉위식을 보러 오라고 초대합니다.



## 맥베스 주요 등장인물



**맥베스 :** 맥베스는 극이 진행되는 동안 성격이 크게 변화하는 복잡한 인물입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의 존경을 받는 충성스럽고 용감한 군인이었죠. 하지만 마녀의 예언을 받은 후 권력에 대한 야망과 욕망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맥베스는 극이 진행됨에 따라 점점 더 무자비해지고 편집증에 시달리며 왕좌를 지키기 위해 여러 차례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는 죄책감과 희생자들의 유령에 대한 환각에 시달리다가 결국 몰락에 이르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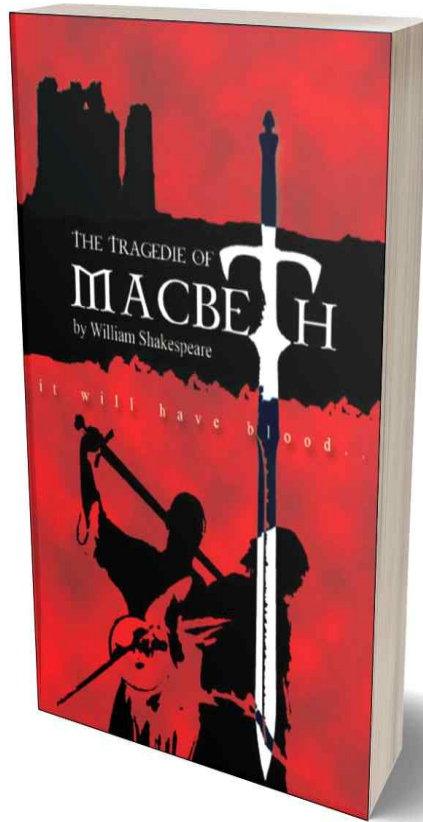
**레이디 맥베스:** 레이디 맥베스는 야망과 권력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힌 강력한 캐릭터입니다. 그녀는 남편보다 더 무자비하고 단호하며 던컨 왕을 살해한 원동력입니다. 레이디 맥베스는 자신의 인간성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극이 진행됨에 따라 레이디 맥베스는 점점 더 죄책감에 시달리고 결국 광기와 자살로 치닫게 됩니다.

**반쿠오:** 반쿠오는 맥베스의 친구이자 스코틀랜드 군대의 동료 장군입니다. 그는 마녀의 예언을 의심하고 맥베스에게 야망에 굴복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충성스럽고 명예로운 인물입니다. 반쿠오는 결국 맥베스에게 살해당하지만 그의 유령은 맥베스를 괴롭히며 그의 죄책감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던컨:** 던컨 왕은 극 초반에 스코틀랜드의 통치자입니다. 그는 신하들의 존경을 받는 친절하고 자애로운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야망에 걸림돌이 된다고 여긴 맥베스에게 배신당하고 살해당합니다.

**맥더프:** 맥더프는 스코틀랜드 귀족으로 맥베스의 주요 라이벌 중 한 명입니다. 맥베스가 자신의 가족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복수에 대한 열망에 사로잡힙니다. 맥더프는 고귀하고 명예로운 인물로, 결국 전투에서 맥베스를 죽입니다.





## 맥베스 등장인물 관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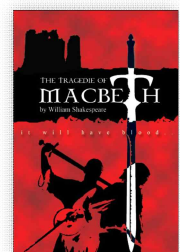
**맥베스와 레이디 맥베스:** 맥베스와 레이디 맥베스는 권력에 대한 야망과 욕망을 공유하는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레이디 맥베스는 맥베스보다 더 무자비하고 단호하며 던컨 왕을 살해한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극이 진행될수록 맥베스는 점점 더 죄책감과 편집증에 시달리고 레이디 맥베스는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죠. 결국 레이디 맥베스는 죄책감으로 인해 광기와 자살에 이르고 맥베스는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맥베스와 반쿠오:** 맥베스와 반쿠오는 모두 스코틀랜드 군대의 장군으로 처음에는 친구이자 전우입니다. 하지만 맥베스는 마녀로부터 예언을 받은 후 야망에 사로잡혀 반쿠오를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깁니다. 맥베스는 반쿠오의 살해를 명령하고, 이는 맥베스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맥베스와 던컨:** 맥베스는 처음에 던컨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던컨이 그를 코도어의 테인으로 임명하자 영광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맥베스는 마녀들로부터 예언을 받은 후 던컨을 자신의 야망에 걸림돌로 여기기 시작하고, 결국 잠든 던컨을 살해합니다.

**맥베스와 맥더프:** 맥베스와 맥더프는 서로에 대한 증오와 복수에 대한 열망으로 특징지어지는 불운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맥더프는 맥베스를 전복하고 말콤을 왕좌에 복귀시키려는 스코틀랜드 귀족 중 한 명입니다. 맥더프는 맥베스가 자신의 가족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큰 충격을 받고 복수에 대한 열망에 사로잡힙니다. 극의 클라이막스인 마지막 막에서 맥더프는 전투에서 맥베스를 죽입니다.

**레이디 맥베스와 던컨:** 맥베스 부인은 처음에 던컨 왕이 자신의 집을 방문했을 때 친절한 주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몰래 그의 살인을 계획하고 결국 범죄에 연루된 결과 죄책감과 광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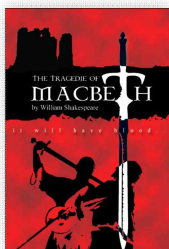


## 맥베스 Timeline



다음은 "맥베스"의 사건을 시간순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1. 맥베스와 반쿠오는 황야에서 세 마녀를 만나게 되는데, 이들은 맥베스가 코도어의 후작이 되어 스코틀랜드의 왕이 될 것이며 반쿠오의 후손이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2. 맥베스는 자신이 코도어의 후작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녀들의 예언을 확인합니다.
3. 맥베스 부인은 마녀들의 예언을 설명하는 맥베스의 편지를 읽고, 그가 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합니다.
4. 던컨 왕이 하룻밤을 묵기 위해 맥베스의 성에 도착합니다. 맥베스 부인은 맥베스와 함께 던컨이 자고 있는 동안 그를 살해할 음모를 꾸민다.
5. 맥베스가 던컨을 살해하고 왕이 됩니다.
6. 맥베스는 자신의 통치에 위협이 될까 두려워 반쿠오와 그의 아들을 살해하라고 명령합니다.
7. 반코는 살해 당하지만 그의 아들 플랑스는 탈출합니다.
8. 맥베스는 점점 편집증이 심해지고 연회에서 반쿠오의 유령을 본다.
9. 맥베스는 다시 마녀들을 찾아 맥더프를 조심하라고 말하고 여자에게서 태어난 남자는 그를 해칠 수 없다고 확신시킵니다.
10. 맥베스는 맥더프의 가족을 살해하라고 명령합니다.
11. 맥더프는 던컨의 아들 말콤과 힘을 합쳐 맥베스에 대항하는 군대를 이끈다.
12. 맥베스 부인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몽유병과 환각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13. 맥베스는 맥더프와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죽임을 당한다.
14. 말콤이 스코틀랜드의 왕으로 즉위한다.



## 맥베스 명대사



If it were done when 'tis done, then 'twere well it were done quickly.

해치워버릴 때 그것으로 일이 끝난다면, 얼른 해치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맥베스) - 1막 7장 1-2행 -

We but teach bloody instructions, which, being taught, return to plague the inventor.

누구에게나 피비린내 나는 악행을 교사하면, 인과는 되돌아와 원흉을 쓰러뜨린다.

(맥베스) - 1막 7장 8-10행 -

Hear not my steps, which way they walk, for fear Thy very stones prate of my whereabouts, And take the present horror from the time, Which now suits with it.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든 그 소리를 듣지 마라. 들으면 내가 하려는 일을 돌마저 겁에 질려 소리지르고, 이 시각에 어울리는 이 무서운 적막을 깨어버린다.

(맥베스가 던컨왕을 살해하기 직전에 하는 독백) - 2막 1장 57-60행 -

Words to the heat of deeds too cold breath gives.

말은 실행의 정열에 찬바람을 몰아올 뿐이다. (맥베스) - 2막 1장 61행 -

Things without all remedy should be without regard; what's done is done.

어찌할 수 없는 일은 잊을 수밖에 없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다.

(맥베스 부인) - 3막 2장 11-12행 -

Blood will have blood.

피는 피를 부른다. (맥베스) - 3막 4장 122행 -

Out, out, brief candle! Life's but a walking shadow, a poor player That struts and frets his hour upon the stage. And then is heard no more; it is a tale. Told by an idiot, full of sound and fury, Signifying nothing.

꺼져라, 꺼져라, 가냘픈[단명한] 촛불이여!

인생은 걸어가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자기 시간에는

무대위에서 장한 듯이 떠들어대지만 지나고 나면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는

가련한 배우에 지나지 않는다.

(죽음을 눈앞에 둔 맥베스가 회한에 사로잡혀 내뱉는 독백) - 5막 5장 23-28행 -

